

종교교육학연구 제20권, pp.147~166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6

청소년의 자아개념, 불안, 희망과 낙관성이 종교정향 발달에 미치는 효과

신 건 호
(강남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종교정향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의 종교정향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변인 중 불안, 자아개념, 희망, 낙관을 상정하여 이 변인들과 종교정향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대학 1·2학년의 학생 3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통계적 분석결과 청소년기 종교정향의 발달과 관계되는 변인으로 불안과 사회적 자아 그리고 낙관으로 나타났고, 종교정향의 하위요인인 외적 정향과는 불안, 사회적 자아, 개인자아 그리고 내적 정향과는 사회적 자아와 불안, 추구정향과는 불안과 개인자아가 유의하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청소년기 발달시기로 나누어 볼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사회적 자아와 종교정향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의 결과에서는 불안과 개인자아가 종교정향과 관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청소년기의 종교정향의 발달에 관계하는 변인의 영향의 의미를 논의하고 추후 관련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종교정향, 사회적 자아, 개인적 자아, 불안, 낙관, 희망, 청소년기

I. 서론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인지적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이 시기의 친구관계와 사회관계는 전에

비하여 깊어지고 넓어짐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만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전에 비하여 좀더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생각하게 된다. 아동기의 종교적 가치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기 초기를 지나 청소년기 중기가 되면 종교문제에 의문을 갖게 되고 종교교리에 심사숙고한다.

Marcia(1976)는 청소년기에 개인이 갖는 종교적 가치관은 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여 인간발달에서 종교적 가치관이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가 분류한 각각의 정체감 상태에 따라 청소년기의 종교적 가치관은 차이를 나타낸다. 부모나 사회의 가치를 그대로 채택하는 정체감 유실의 청년들은 부모의 종교적 신념을 무조건 수용한다. 정체감 유예의 청년들은 정체감 획득을 위해 능동적 탐색을 시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직 종교적 가치관을 확립하지는 못했지만 종교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갖고 시험하며 종교 교리에 대해서 심사숙고한다.

한편, 정체감 혼란의 청년들은 정체감 획득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로써 종교 문제에 대해 의문조차 갖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기는 하지만,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지 못하고 정신적 소외를 경험한다. 대조적으로 정체감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정체감 획득 청년들은 종교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생의 안내자로서의 종교를 수용한다.

종교적 신념발달 이론가인 Fowler(1976)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종합적-관습적 신념에서 개별적-반성적 신념으로 발달하는 시기이다. 그는 인간의 인지발달이론가들의 입장에 기초하여 종교적 신념 발달의 6단계를 제시하였다. 각 단계는 아직 종교적 가치관으로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신념(fait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직관적-투시적 신념(4세 이후), 신화적-사실주의적 신념(6~11, 12세), 종합적-관습적 신념(12, 13세 이후), 개별적-반성적 신념(18, 19세 이후), 단계 5 : 역설적-통합적 신념(20~22세 이후), 보편적 신념(38~40세 이후)의 6단계로 종교적 신념의 발달단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발달이론에 기초한 연구들은 많은 청소년과 청년, 심지어 성인들까지 단계 3의 종합적-관습적 수준의 신념을 지니고 단지 일부의 개인들만이 개별적-반성적 신념 단계에 도달한다고 주장한다(Lloyd, 1985). 종합적-관습적 신념 단계의 청소년과 청년 및 성인들은 부모나 가까운 다른 사람의 종교적 신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이비 종교의 맹신자가 될 수 있다. 종말론 맹신자가 되어 학업을 포기하고 신도들과 집단 기도 생활을 하는 청소년, 입영 날짜를 받고도 전도에 매달린 20대 후반의 남성 및 세상의 종말에 대비해 낙태 수술까지 받은 30대 여성의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한국

일보, 1992, 8.14).

종교적 정체감 발달을 위해 가장 의미 있는 시기는 청년후기이다(Fowler, 1976).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약 68%가 종교를 중요하다고 인식함으로써 이 시기가 종교적 정체감 발달을 위해 중요한 시기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형식적 조작능력의 발달과 함께 청년들은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적 신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진다. 특히 대학 환경은 청년들의 종교에 대한 전통적 신념을 감소시키고 보다 더 추상적이고 고차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Feldman과 Newcomb, 1969). 그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는 대학생들의 수가 증가한다.

청소년기의 종교를 갖게 되는 방식은 그의 신앙생활이나 개인적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는 동기를 내적인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눈다. 이러한 분류의 기저에는 신앙을 내적인 동기에 의한 신앙과 외적 동기에 의한 신앙으로 구분하고 성숙한 종교인이 어떠한 동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내재해 있다. 이러한 분류에 기초하여 Allport(1966)는 신앙인이 종교를 갖게 되는 방식을 외적 동기에 바탕을 둔 외적 종교정향과 내적 동기에 바탕을 둔 내적 종교정향으로 구분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Allport와 Ross(1967)의 이 척도는 성숙한 종교인과 성숙된 종교인을 변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Batson과 Ventis(1982)는 내적 정향과 외적 정향의 개념만으로는 성숙한 종교인을 구분해 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 3의 요소로 추구적 정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백승치와 김동기, 1994). 그들에 의하면 추구적 정향은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사고와 자신을 객관화하는 힘과 미완성의 문제를 탐색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그들은 개인의 종교에 대한 외부적·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외적 척도 즉 수단적 정향, 내적 욕구의 결과를 나타내는 내적 척도 즉 목적적 정향, 그리고 실존문제에 개방적이고 대응적 대화를 개인적 종교가 포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호작용적 척도 즉 추구적 정향의 3요소로 나누었다. 종교정향과 관련한 연구들은 종교정향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가 다르다(김동기, 2003) 외적 종교정향은 불안과 정적으로 관계되고 있는데 비하여 내적 정향은 불안과 부적으로 상관되어 있다고 지적한다(Baker와 Gorsuch, 1982).

본 연구에서는 종교정향도 나이에 따라 발달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Fowler(1976)의 종교적 신념발달이론에 기초한다. 그가 지적하였듯이 청소년기는 종교적 신념이 종합적-관습적 신념에서 개별적-반성적 신념으로 발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종교정향은 전 단계의 발달단계에 비하여 안정되고 내적으로 성숙되어 갈 수도 있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서 종교정향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아동들은 부모나 교사, 종교 지도자 혹은 동년배의 가르침에 의존하고, 규칙을 절대시하며, 규칙을 어기면 신의 처벌을 받고 규칙을 지키면 신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사회적, 법적, 종교적 관습에 뿌리를 둔 신념을 형성한다.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특정 집단의 신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조건 무시한다. 따라서 이들의 종교정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앞서의 아동기와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청년기 후기는 관습이나 인습에서 벗어난 종교적 신념을 형성한다. 이제 각 개인은 그들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종교의 교리나 주의를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종교정향의 발달에서 볼 때 초기와 중기 그리고 후기에서 서로 다른 요인들의 종교정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중요한 개인내적 요인으로 자아개념과 희망, 그리고 낙관성을 상정하였다. 이 개념들은 청소년 발달을 통하여 보다 더 성숙하고 풍부해져 간다. 또한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작동하는 또 다른 내적 기제는 불안이다. 호르몬과 신체변화, 인지적 변화와 역할의 변화는 청소년들을 불안으로 휩싸이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종교정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기 종교정향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청소년기를 초기와 중기 그리고 후기로 나누어 볼 때 각 시기에서 종교정향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II. 방 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지역의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각각 2개씩 선정하여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3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분석대상자의 학교와 성별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학교급(학년)별 남녀의 분포

학교(학년)	성별	사례(명)
중학교(2학년)	남	56
	여	80
	합	136
고등학교(2학년)	남	64
	여	64
	합	128
대학교(1·2학년)	남	49
	여	66
	합	115

대상자 379명의 종교 분포는 기독교 126명, 천주교 56명, 불교 54명, 기타 종교 10명 그리고 ‘현재는 종교 없음’은 133명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종교정향과 자아개념, 낙관, 불안 그리고 희망을 측정하는 질문지였다. 이들 질문지들은 대상자들에게 집단적으로 배포되고 회수되었다. 구체적인 측정변인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교정향의 측정 : 종교정향은 Batson과 Ventis(1982)이 개발한 종교정향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요인으로 내적 정향(9개 문항), 외적 정향문항(6개 문항) 그리고 추구적 정향문항(6개 문항) 그리고 허위척도(4개 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을 무선적으로 배열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의 7점 척도에서 응답자가 반응하게 하였다. 각 요인에 속한 문항들에 반응을 합산하여 각각 내적 종교정향, 외적 종교정향, 추구적 종교정향의 점수를 내고 이 하위요인의 점수를 더하여 종교정향 전체점수를 산출하여 분석의 지표로 삼았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 α)를 본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 하위 척도인 내적 종교정향 .85 외적 종교정향 .87, 추구적 종교정향 .70, 그리고 전체 종교정향은 .93으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의 측정 : 자녀들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Shavelson 등(1982)의 연구를 근거하여 윤희준(1984)이 범주화하여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래 이 검사는 자아개념을 신체적 자아, 사회적 자아, 개인적 자아, 그리고 학업적 자아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두개의 요소

즉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만을 측정한 태명화(1999)가 사용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을 제시하고 ‘아니다(1)’에서 ‘그렇다(5)’의 5점 척도에서 응답자가 반응하게 하였다. 이 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 α)를 본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 개인적 자아 .76, 사회적 자아 .81, 전체자아 .86으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의 측정 :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 등(1970)이 제작한 상태불안과 특성불안검사를 김정택(197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과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성불안 문항을 사용하였다. 검사에서는 각 문항을 제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대단히 그렇다(4)’의 4점 척도에서 응답자가 반응하게 하였다. 이 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 α)를 본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 .88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의 측정 : Scheier와 Carver(1982: 1985)가 미래에 대한 일반화된 긍정적 기대로서의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8문항으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cheier, Carver 와 Bridges가 1994년 개정한 삶의 정향 평가지(A Reevaluation of Life Orientation Test; LOT-R)에서 한 낙관주의 척도 수정판을 사용했다. 각 문항을 제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에서 응답자가 반응하게 하였다. 이 낙관성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 α)를 본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 .67로 나타났다.

희망의 측정 : 희망척도는 개인의 안정된 특성을 중심으로 희망을 측정하는 특성희망 척도와 개인의 현재상태를 중심으로 희망을 측정하는 상태희망 척도로 크게 구분된다. Snyder와 Harris 등(1996)에 의해 개발된 특성희망 척도(Trait Hope Scale)는 모두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계산한 희망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92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별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선행 변인 간 상관관계를 통제하고 종교정향과 관련된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을 통합하여 전체적인 결과에서도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결과에서는 먼저 집단별 분석결과를 제시하였고 이어서 전체 대상자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중학생(청소년기 초기)의 종교정향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청소년기 초기인 중학생의 종교정향과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중학생의 종교정향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r)

종교정향 관련변인	외적	내적	추구적	정향전체
개인적 자아	.141	.174*	.201*	.186*
사회적 자아	.176*	.215*	.195*	.214*
불안	-.075	-.042	.008	-.081
낙관성	.080	.125	.195*	.141
희망	-.072	.044	.243*	.124

* $p < .05$

위의 표에서 보듯이 중학생의 외적 종교정향은 사회적 자아와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 = .176, p < .05$). 이 결과는 사회적 자아가 높을수록 외적 종교지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종교정향은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와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 = .174, p < .05$; $r = .215, p < .05$). 이 결과는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높을수록 내적 종교정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추구적 종교정향은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 낙관성, 그리고 희망과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 = .201, p < .05$; $r = .195, p < .05$; $r = .195, p < .05$; $r = .243, p < .05$). 이 결과는 개인적 자아, 사회적 자아, 낙관성 그리고 희망이 높을수록 추구적 종교정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종교정향전체와 개인적 자아 그리고 사회적 자아와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 = .186, p < .05$; $r = .214, p < .05$). 이 결과는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높을수록 종교정향 전체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아와 상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진 외적 정향을 제외하고 내적 정향, 추구적 정향, 그리고 정향전체는 2개 이상의 변인과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변인간 상관관계를 통제하고 정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방법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내적 정향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내적 종교정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결과

예언 변인	Beta계수	T	P
사회적 자아	.215	2.552	.012

<표 3>에서 보면 사회적 자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학생의 내적 종교정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과 희망, 개인적 자아 그리고 낙관성은 내적 종교정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추구적 종교정향에 대한 결과는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추구적 종교정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결과

예언 변인	Beta계수	T	P
희망	.243	2.902	.004

<표 4>에서 보면 관련 변인 중 희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학생의 추구적 종교정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과 사회적 자아, 개인적 자아 그리고 낙관은 추구적 종교정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각 하위 종교정향점수 전체를 더한 종교정향 전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종교정향 전체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결과

예언 변인	Beta계수	T	P
사회적 자아	.214	2.535	.012

<표 5>에서 보면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관련 변인 중 사회적 자아만이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중학생의 종교정향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과 사회적 자아, 개인적 자아 그리고 낙관과 희망은 중학생의 종교정향 전체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중학생의 결과를 요약하면 외적 정향과 내적 정향 그리고 전체 종교정향을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사회적 자아개념이었다. 중학생의 추구적 정향은 희망에 의해서만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2. 고등학생의 종교정향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고등학생의 종교정향과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상관관계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고등학생의 종교정향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r)

종교정향 관련변인	외적	내적	추구적	정향전체
개인적 자아	.169	.047	.049	.104
사회적 자아	.236*	.216*	.180*	.186*
불안	-.058	-.033	.072	-.018
낙관성	.251*	.135	.008	.162
희망	-.102	.032	.172	.103

* $p < .05$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고등학생의 외적 종교정향은 사회적 자아와 낙관성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 = .236, p < .05$; $r = .251, p < .05$). 이 결과는 사회적 자아와 낙관성이 높을수록 외적 종교정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종교정향은 사회적 자아와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 = .216, p < .05$). 이 결과는 사회적 자아가 높을수록 내적 정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추구적 종교정향은 사회적 자아와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 = .180, p < .05$). 이 결과는 사회적 자아가 높을수록 추구적 종교정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종교정향전체에서도 사회적 자아가 종교정향과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 = .186, p < .05$). 이 결과는 사회적 자아가 높을수록 종교정향 전체가 높음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의 내적 종교정향, 추구적 정향 그리고 종교정향전체에서 사회적 자아

와 상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정향은 사회적 자아와 낙관성과의 상관관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변인간 상관관계를 통제하고 외적 정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방법에 의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고등학생의 외적 종교정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결과

예언 변인	Beta계수	T	P
낙관성	.251	2.908	.004

<표 7>에서 보면 낙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등학생의 외적 종교정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결과를 요약하면 내적 종교정향, 추구적 정향 그리고 전체 종교정향을 설명하는데 유의있는 유일한 변인은 사회적 자아개념이었다. 고등학생의 외적 종교정향은 낙관성에 의해서만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3. 대학생의 종교정향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대학생의 종교정향과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듯이 대학생의 외적 종교정향은 개인적 자아와 낙관성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78, p<.05$; $r=.210, p<.05$). 이 결과는 개인적 자아와 낙관성이 높을수록 외적 종교정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종교정향은 불안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54, p<.05$) 이 결과는 대학생의 불안이 높을수록 내적 종교정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표 8> 대학생의 종교정향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r)

종교정향 관련변인	외적	내적	추구적	정향전체
개인적 자아	.278*	.136	.092	.187*
사회적 자아	.182	.121	.070	.137
불안	.120	.256*	.316*	.232*
낙관성	.210*	.182	.178*	.201*
희망	.095	-.012	-.042	.022

* $p<.05$

추구적 종교정향은 불안과 낙관성과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316, p<.05$: $r=.178, p<.05$). 이 결과는 불안과 낙관성이 높을수록 추구적 종교정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종교정향전체와 개인적 자아, 불안 그리고 낙관성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187, p<.05$: $r=.232, p<.05$: $r=.201, p<.05$). 이 결과는 개인적 자아와 불안 그리고 낙관성이 높을수록 종교정향 전체가 높음을 의미한다.

불안과의 상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진 내적 종교정향을 제외하고 내적 정향, 추구적 정향, 그리고 정향전체는 2개 이상의 변인과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변인간 상관관계를 통제하고 종교정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방법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외적 정향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외적 종교정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결과

예언 변인	Beta계수	T	P
개인적 자아	.394	4.108	.000
불안	.282	2.937	.004

<표 9>에서 보면 불안과 개인적 자아가 대학생의 외적 종교정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아, 희망, 그리고 낙관성은 외적 종교 정향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추구적 종교정향에 대한 결과는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추구적 종교정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결과

예언 변인	Beta계수	T	P
불안	.426	4.483	.000
개인적 자아	.267	2.812	.006

<표 10>에서 보면 관련 변인 중 불안과 개인적 자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대학생의 추구적 종교정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아, 낙관 그리고 희망은 추구적 종교정향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대학생의 하위 종교정향 점수를 더한 종교정향 전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대학생의 종교정향 전체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결과

예언 변인	Beta계수	T	P
불안	.371	3.883	.000
개인적 자아	.339	3.552	.001

<표 11>에서 보면 관련 변인 중 불안과 개인적 자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대학생의 종교정향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아, 낙관 그리고 희망은 대학생의 종교정향 정체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였다.

대학생의 결과를 요약하면 외적 정향과 내적 정향, 추구적 정향의 모든 하위 요인과 종교정향전체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불안이었다. 대학생의 내적 종교정향을 제외하고 다른 종교정향들은 대학생의 개인적 자아에 의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4. 청소년 전체 대상자의 종교정향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 전체의 종교정향과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청소년 전체의 종교정향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r)

종교정향 관련변인	외적	내적	추구적	정향전체
개인적 자아	.181*	.119*	.106*	.149*
사회적 자아	.183*	.176*	.076	.163*
불안	.026	.057	.177*	.084
낙관성	.170*	.144*	.121*	.158*
희망	.076	.019	.108*	.070

*p<.05

위의 표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외적 종교정향은 개인적 자아, 사회적 자아 그

리고 낙관성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181, p<.05$: $r=.183, p<.05$: $r=.170, p<.05$). 이 결과는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 그리고 낙관성이 높을수록 외적 종교지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종교정향은 개인적 자아, 사회적 자아 그리고 낙관성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119, p<.05$: $r=.176, p<.05$: $r=.144, p<.05$). 이 결과는 개인적 자아, 사회적 자아 그리고 낙관성이 높을수록 내적 종교정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추구적 종교정향은 개인적 자아와 불안, 낙관성, 그리고 희망과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106, p<.05$: $r=.177, p<.05$: $r=.121, p<.05$: $r=.108, p<.05$). 이 결과는 개인적 자아, 불안, 낙관성 그리고 희망이 높을수록 추구적 종교정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정향전체와 개인적 자아, 사회적 자아 그리고 낙관성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149, p<.05$: $r=.163, p<.05$: $r=.158$). 이 결과는 개인적 자아, 사회적 자아 그리고 낙관성이 높을수록 종교정향 전체가 높음을 의미한다.

변인간 상관관계를 통제하고 종교정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방법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외적 정향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청소년의 외적 종교정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결과

예언 변인	Beta계수	T	P
불안	.142	2.545	.011
개인자아	.154	2.302	.022
사회자아	.139	2.129	.034

<표 13>에서 보면 불안, 개인적 자아, 그리고 사회적 자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청소년 전체의 외적 종교정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과 낙관성은 외적 종교정향에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내적 종교정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청소년의 내적 종교정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결과

예언 변인	Beta계수	T	P
사회자아	.228	4.214	.000
불안	.140	2.597	.010

<표 14>에서 보면 사회적 자아와 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청소년의 내적 종교정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과 낙관성 그리고 개인적 자아는 내적 종교정향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였다.

추구적 종교정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청소년의 추구적 종교정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결과

예언 변인	Beta계수	T	P
불안	.270	4.918	.000
개인자아	.220	4.017	.010

<표 15>에서 보면 불안과 사회적 자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청소년의 추구적 종교정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과 낙관성 그리고 사회적 자아는 내적 종교정향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였다.

종교정향 전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청소년의 종교정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결과

예언 변인	Beta계수	T	P
사회자아	.173	2.962	.003
불안	.175	3.237	.001
낙관성	.121	2.174	.030

<표 16>에서 보면 사회적 자아, 불안 그리고 낙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청소년의 종교정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과 개인적 자아는 종교정향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전체 대상자에서 나타난 종교정향의 결과는 불안과 사회적 자아가 종교정향과 유의하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자아와 낙관성도 부분적으로 종교정향의 하위요인과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종교정향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2학년 136명 고등학교 2학년생 128명 대학교 1·2학년 115명을 표집하여 종교정향, 불안, 개인적 자아, 사회적 자아, 낙관성 그리고 희망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하는 구체적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의 종교정향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청소년기 시기 간(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종교정향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서로 다를 것인가? 이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상관과 중다회귀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나타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종교정향의 발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자아, 불안 그리고 낙관성이었다.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가 긍정적이고 불안과 낙관성이 높을수록 종교정향도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외적 종교정향의 결과를 보면 불안과 개인적 자아, 그리고 사회적 자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계되어 있었다. 청소년들의 불안과 개인적 자아 그리고 사회적 자아가 높을수록 외적 종교정향도 높았다. 내적 종교정향의 결과에서는 사회적 자아와 불안이 내적 종교정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계되어 있었다.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와 불안이 높을수록 내적 종교정향도 높았다. 추구적 종교정향의 결과에서는 불안과 개인적 자아가 추구적 종교정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계되어 있었다. 청소년의 불안과 개인적 자아가 높을수록 추구적 종교정향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결과를 요약하면 외적 정향과 내적 정향 그리고 전체 종교정향을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사회적 자아개념이었다. 중학생의 추구적 정향은 희망에 의해서만 설명되었다.

셋째, 고등학생의 결과를 요약하면 내적 종교정향, 추구적 정향 그리고 전체 종교정향을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유일한 변인은 사회적 자아개념이었다. 고등학생의 외적 종교정향은 낙관성에 의해서만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넷째, 대학생의 결과를 요약하면 외적 종교정향과 추구적 종교정향 그리고 종교정향 전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불안과 개인적 자아였다. 대학생의 내적 종교정향은 불안에 의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장 뚜렷한 결과는 종교정향을 설명하는 유의있는 변인이 불안과 사회적 자아개념이라는 것이다. 이 결과는 청소년기 종교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개인의 내적 변인이 불안이고, 이어서 사회적 자아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불안이 높을수록 종교정향이 높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역시 종교정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

를 종교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종교자체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기 보다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적 목적으로 종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나이가 어릴수록 명백하게 보여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학교 2학년생과 고등학교 2학년생의 종교정향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이 두 집단의 결과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집단 모두가 종교정향전체나 종교정향의 하위요인들에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은 사회적 자아개념이다. 사회적 자아개념은 타인과의 관계 특히 중요한 타인관계에 자기를 비추어보는 자아다. 주로 또래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선생님과 의 관계가 반영되는 자아이다. 청소년기 초기나 중기에는 부모나 또래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종교정향의 발달도 이러한 친구나 부모관계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 시기가 종합적-관습적 신념의 단계를 반영하여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법적, 종교적 관습에 뿌리를 둔 신념을 형성한다는 Fowler(1976)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한편에서 이 결과에서 보면 종교정향의 하위영역을 설명하는 변인들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종교정향의 개념에서 분화되지 않았거나 아직 발달의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결과에서 제시하지 않았지만 종교정향 하위척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척도 간의 상관이 최하 $r=.65$ 에서 최고 $r=.86$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아직 분화되고 발달된 종교정향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연히 이들 하위요인을 설명해주는 변인들이 유사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종교정향을 재는 척도의 문제로서 이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를 여기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대학생의 결과는 종교정향을 설명해주는 변인들이 앞서의 중·고등학교 집단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종교정향과 그 하위요인을 의의있게 설명하는 변인이 불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이 높을수록 종교정향이 높다는 사실은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불안은 불안의 두 종류, 즉 특성불안과 상태불안 중 특성불안으로서 개인의 성격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요인이다. 소년기를 벗어나 청년기에 접어든 대학생들의 불안이 종교정향을 의의있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대학생 시기에 불안이 각성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반응으로 종교정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대상의 다른 집단에 비하여 대학생집단에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다른 의미있는 대학생의 결과는 개인적 자아개념이 종교정향을 설명해주

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의 개인적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외적 종교정향과 추구적 종교정향 그리고 종교정향전체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종교정향을 설명하는 변인과 다르다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있다. 중·고등학교 시기를 지나 대학생이 되어야 개인의 내적 특성이 종교정향의 발달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를 개별적-반성적 신념단계로 보고 이 단계의 청년이나 성인들은 관습이나 인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종교의 교리나 주의를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Fowler(1976)의 주장과 일치한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닐 수 있다. 무엇보다도 종교정향의 발달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 불안과 자아개념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변인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상정된 변수들이 인간들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충분한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불안과 자아개념의 영향은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본 연구의 하나의 의의로 언급할 수 있다. 불안은 오직 대학생집단의 종교정향에만 영향을 주고 자아개념은 중·고등학교 학생의 종교정향과 대학생의 종교정향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 즉 개인적 자아는 대학생의 종교정향에 사회적 자아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종교정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일반화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 집단이 경기도 신도시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연구결과를 발달적으로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세 집단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일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못한다. 특정한 집단을 뽑아 그들을 일정기간 추적한 발달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간 차이가 발달에서 기인할 수 있지만 단순히 표집에서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반박에 자유롭지 못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상정한 변인이외에 다른 변인들이 도입되어 종교정향을 연구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현재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기 종교정향의 발달을 좀더 의미있게 이해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이영, 상담과정 희망척도의 개발과 적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김동기, 〈가톨릭 청년의 종교정향, 영성, 신앙 태도 그리고 생활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 서울 :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 30집, 21-46, 2003.
- 김동기, 《종교심리학》, 서울 : 학지사, 2003.
- 김정택,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 백승치·김동기. 〈종교정향에 따른 종교인의 유형연구 : 천주교인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85-106, 1994.
- 윤희준, .수업풍토와 아동의 자아개념과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 태명화, 초등학생 아동의 학습양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1994.
- Allport, G. W., The religious context of prejudi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 447-457, 1966.
- Allport, G. W. & Ross, J. M.,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32-443, 1967.
- Baker, M. & Gorsuch, R., Trait anxiety and intrinsic-extrinsic religiousnes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1, 119-122, 1982.
- Batson, C. D. & Ventis, W. L., *The religious experience: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Feldman, K. A. & Newcomb, T. S., The impact of college on student, SanFrancisco: Jossey-Bass, 1969.
- Fowler, J. W., Stages in faith : The structurual development approach, In T. Hennessy(ED.), *Values and moral development*, NY:Paulist Press, 1976.
- Lloyd, M. A., *Adolescence*, NY: Harper & Row, Pubishers, 1985.
- Marcia, J. E., *Studies in ego identity*. Unpublished momograph, Simon Fraser University, Burnaby, British Columbia, 1976.
- Scheier, M. F., & Carver, C. S.,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8, 1982.
- Scheier, M. F., & Carver, C. S.,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1985.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63-1078, 1994.
- Snyder, C. R., Simpson, S. C., Ybasco, F. C., Borders, T. F., Babyak, M. A., & Higgins, R. 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ate hop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21-335, 1996.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E.,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1970.

원고접수: 2005년 5월 12일 1차심사: 6월 2일 게재승인일: 6월 14일

연구자 소개 : 신건호

① 전공 : 교육심리학 / 소속 : 강남대학교 교육학부 교수

② 관심영역 : 사회심리발달, 가치관(이데올로기와 종교)의 발달, 인간발달

③ 주요 논저 :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집단 심리》, 《아동발달》

④ E-mail : khshin@kangnam.ac.kr

The effects of self-concept, anxiety, hope and optimism on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orientation of youth

Shin, Keonho
(Kangnam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influential determinants for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orientation of the youth. On the assumption that anxiety, self-concept, hope and optimism affect the religious orienta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ssumed determinants and the religious orientation are studied from the positive viewpoints.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are 379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of junior high-schools and of high-schools, and the freshmen and the sophomores of colleges.

This research led to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nxiety, social self-concept and optimism affect the religious orientation. Secondly, anxiety, social self-concept and individual self-concept affect the external orientation which is subordinate to the religious orientation. Thirdly, social self-concept and anxiety affect the internal orientation. Finally, anxiety and individual self-concept affect the quest orientation. Additional results are as follows: The social self-concept and the religious orientation are significantly interrelated to each other both in the groups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anxiety and the religious orientation are interrelated to each other in college students.

Discussing the influence and the meaning of the determinants for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orientation of the youth, his research also aims to suggest further studies.

Key words: religious orientation, social self-concept, personal self-concept, anxiety, hope, optimism